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20년 10월, 머스크 보유 선박 690척으로 세계 1위 유지



### 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베트남, 호치민시 인근에 신규 컨 터미널 건설 추진
2. 미얀마, 전자상거래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노력
3. 코로나19로 올해 국제물류주산업 시장 규모 전년 대비 10% 감소



### 공지사항

- 「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- 미국편」

일시: 2020. 10. 28(수) 14:00~17:00

진행방식: 줌(Zoom)을 통한 실시간 영상회의

\* Zoom 영상회의 링크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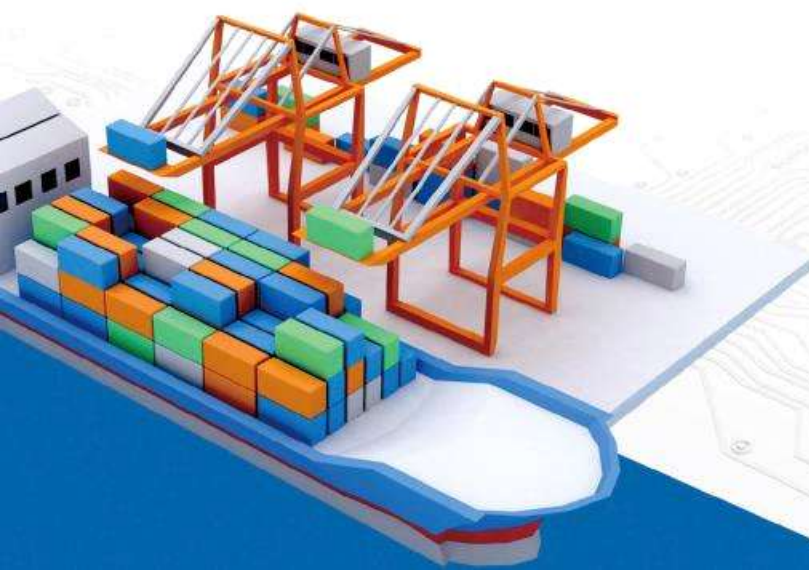
<https://us02web.zoomus/j/86166383738?pwd=T1NCWGs2U3YwSWd0UUsR1NDV3pZz09>

※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조

### 명사 스피치

“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항만별 다양한 물동량 유인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.”

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  
(2020. 10. 21. /한국해운신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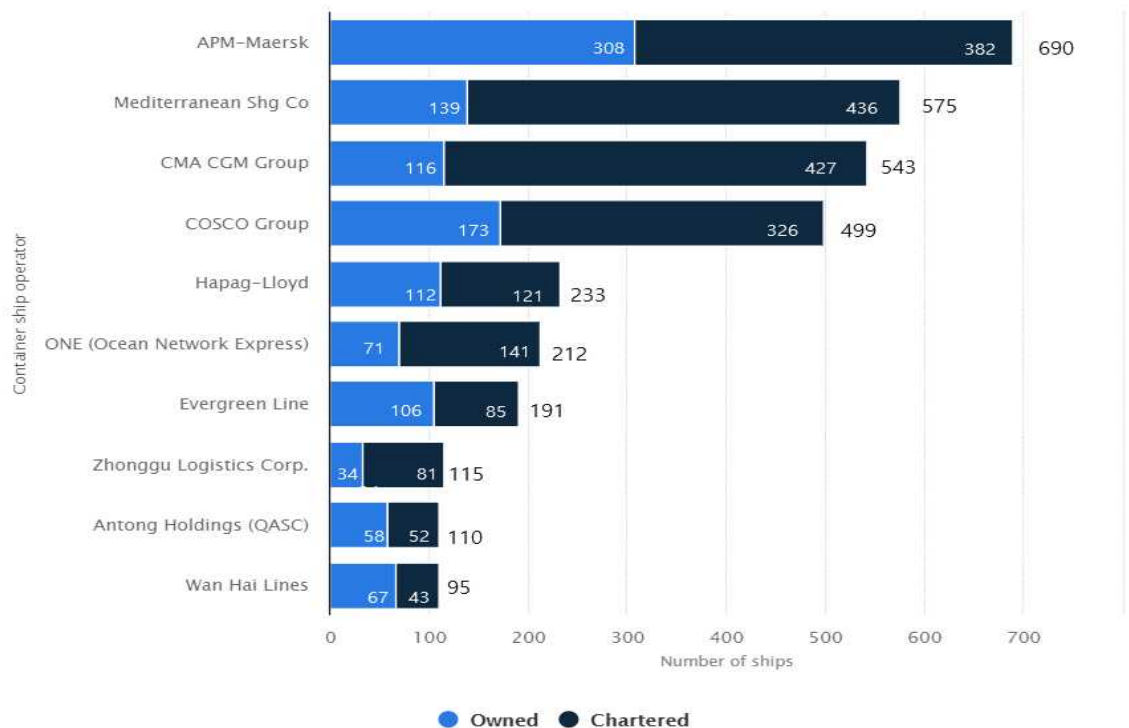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 2020년 10월, 머스크 보유 선박 690척으로 세계 1위 유지

2020년 10월 기준 글로벌 선사 보유 선박 현황

(단위 : 척수)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위 통계는 2020년 10월 12일 기준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순위를 나타냄
  - 자사 소유의 선박과 용선 수를 모두 포함하여 나타낸 순위임
- 머스크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, MSC, CMA CGM, COSCO, Hapag-Lloyd 순으로 선박 보유
  -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80 ~ 90%는 20ft와 40ft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은 영사인 머스크는 690척의 컨테이너선과 약 400만 TEU의 운송 능력을 보유함
  - 2019 년 머스크는 약 3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, 이중 280억 달러는 해양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함
- 총 선박 수 및 자사소유 선박은 머스크가 가장 많지만, 용선선박은 MSC가 가장 많이 보유함

■ 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(검색일: 2020.10.20)

이지원 연구원

051-797-4799, jiwon@kmi.re.kr



## 베트남, 호치민시 인근에 신규 컨 터미널 건설 추진

-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시 인근 외곽 지역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추진을 발표했음
  -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,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및 미주지역에 대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호치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
  - 이는 미-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터미널 건설을 통해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, 호치민시 인근 3~4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음
- 호치민시 교통부는 신규 터미널 건설 사업을 '2021~2030 항만개발계획'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음
  - 호치민 및 베트남 항만당국은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대상 지역으로 최종 4곳을 선정하였으며, 롱안성의 떤안(Tan An) 및 빈칸(Binh Khanh)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남
  - 떤안 지역은 호치민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 총 톤수 10만 톤 크기의 대형 선박이 입항 가능하나 터미널 면적이 50ha 수준으로 매우 협소한 단점이 있음
  - 빈칸 지역은 롱따우 강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터미널 면적은 250ha, 3~5만 톤 규모의 선박이 입항 가능하며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내륙운송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
- 호치민시는 및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세 및 선박 규모, 터미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터미널 건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임
  - 베트남의 컨설팅 기관 Hang Hai는 신규 터미널 건설 부지에 대하여 화물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 물류 인프라와의 연결성 및 접근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 언급함
  - 이에 베트남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최종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규 터미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내년도 항만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[www.freshplazs.com](http://www.freshplazs.com)(검색일: 2020.10.19.)
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[kdong@kmi.re.kr](mailto:kdong@kmi.re.kr)



## 미얀마, 전자상거래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노력

-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 배달, 온라인 소매, 모바일 결제 등과 관련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  - 이를 통해 미얀마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욕을 보이고 있음
  - 현재 전자상거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움직임은 UNCTAD의 전자거래 준비도 평가(UNCTAD e-trade readiness assessment) 및 자국의 디지털 경제 로드맵의 권장 사항과도 일치함
-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당시 경제구호계획을 통해 전자상거래 강화를 우선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음
-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  - 아직까지 자국내 온라인 소비자 수는 적은 편<sup>1)</sup>이나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큰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임
- 코로나19가 선언되기 이전에도 미얀마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음
  - 2019년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 순위에서 미얀마는 152개 국가 중 이전 133위에서 126위로 무려 7위나 상승한 바 있음
-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미얀마 경제를 강타했으며, GDP 성장률은 2018~2019년 6.8%에서 2019~2020년 0.5%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됨
- 미얀마 상무성(Department of Trade at the Ministry of Commerce) 국장은 전자상거래는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함
- 또한 미얀마는 전자상거래 전략은 지역 및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, 나아가 정부 이니셔티브와 국가 계획에 걸쳐 시너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[www.unctad.org](http://www.unctad.org)(검색일: 2020.10.21.)

신수용 부연구위원

051-797-4780, [shinsy@kmi.re.kr](mailto:shinsy@kmi.re.kr)

1) 2017년 기준 전체인구의 3% 수준

## 코로나19로 올해 국제물류주산업 시장 규모 전년 대비 10% 감소

- 국제물류주산업체(이하 '포워더')는 수입 또는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의 운송 업무를 대행해 주는 운송대행 물류업체를 의미함
  - 주요 글로벌 포워더로 디에이치엘(DHL), 퀴네앤드나겔(Kuehne & Nagel), 유피에스(UPS) 등이 있음
  - 글로벌 포워더는 고객에게 도어 투 도어(door to door)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
- 코로나19가 포워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
  - 10월 영국 물류 컨설턴트사인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(Ti: Transport Intelligence)는 2020년 전 세계 포워딩 시장이 물동량 기준 전년 대비 10.2%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
  - 포워딩 시장 해상 물동량 성장률은 -6.4%로 전망됨
  - 포워딩 시장 항공 물동량 성장률 전망치는 -13.9%로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을 경신한 것임
- 코로나19로 인해 포워딩 시장에서 특히 항공 물동량 둔화 폭이 큼
  - 포워딩 시장 항공 물동량은 미·중 무역마찰 등으로 2019년 물동량 성장률이 전년 대비 -4.1%를 기록한 바 있음
  - 포워딩 시장 항공 물동량은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-15.3%를 기록했다
  - 2020년 하반기 포워딩 시장 항공 물동량은 상반기 대비 감소 폭이 작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물동량 둔화 폭이 다시 커질 수 있음
- 세계적인 생산과 소비의 정체에 가세해 항공운임 급등에 의한 해상 수송으로의 전환이 항공운송 실적을 저하시키고 있음
  - 해상운임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항공운임은 일부 항로의 경우 10배 가까이 상승함
  - Ti는 세계 항공화물 수송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[www.secure.marinavi.com/news](http://www.secure.marinavi.com/news)(검색일: 2020.10.19)

안영균 전문연구원

051-797-4643, ahnyg@kmi.re.kr





## 공지사항

## 「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- 미국편」

- 「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」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'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- 미국편'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
본 투자설명회는 미국 동부지역 투자유망사업 정보를 공유하고,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,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를 비롯한 미국 조지아 주 정부, 미국 우리 물류기업 관계자, 국제물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올해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10명 내외의 필수 참석 인원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투자설명회에 대면 참석할 예정이며, 국제물류 기업,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투자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**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**됩니다.

- 상세한 주제 및 내용은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시 : 2020. 10. 28(수) 14:00~17:00
- 주제 : 미국 동부 지역의 유망 투자사업 정보공유 및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진행 방식 : 줌(ZOOM)을 통한 **실시간 온라인 진행**
- 회의 링크 및 ID/PW
  - 회의 링크: <https://us02web.zoom.us/j/86166383738?pwd=TlN0VGs2UkYwSWRlM0UyR1NDV3pZ09>
  - ID: **861 6638 3738**
  - PW: **kmi12345**

- 영상회의(Zoom) 참가 시 유의사항

- 참가 전에 프로필 정보를 [기관명 - 이름 및 직함]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예시) 한국해양수산개발원 - 김은수 실장
- 회의 링크를 클릭한 후 위에 제시된 ID/PW 입력 후 참가하시면 됩니다.
  - 별도로 Zoom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참석 가능



<<프로그램>>

시간	주요 내용	지정 토론자
14:00-14:10	개회인사	
14:10-14:35	<b>발표 1. 미국 3PL 물류시장의 특성 및 진출 유망지역 전망</b> 박남 (DSF L&I, 대표)	이한수 교수 (한국항공대)
14:35-15:00	<b>발표 2. 미국 동부지역 항만물류시장 특성 및 진출 유망사업 전망</b> John Park (Webtrans Logistics Inc., 대표)	곽동욱 교수 (경북대학교)
15:00-15:25	<b>발표 3. 조지아주 물류 및 운송 생태계</b> <b>(Georgia'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Ecosystem)</b> Emily Butler (Center of Innovation for Logistics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, 국장)	박노언 대표 (NCI 컨설팅그룹)
15:25-15:50	<b>발표 4. 사바나항 가든시티 터미널: 미국 동남부 관문</b> <b>(Port of Savannah Garden City Terminal: The Southeast Gateway for the U.S.)</b> Stacy B. Watson (Economic & Industrial Development Georgia Ports Authority, 이사)	구자림 실장 (부산항만공사)
15:50-16:15	<b>발표 5. 미국 물류산업의 허브, 조지아주</b> Peter Underwood (State of Georgia-Korea office, 소장)	길광수 교수 (한국해양대)
16:15-16:35	<b>발표 6. 미 동안 Gate Port별 물류현황 및 향후 예상</b> 최준석 (HMM 미주본부, 상무)	천용건 부장 (한국해양 진흥공사)
16:35-17:00	종합 및 폐회	

- ☐ 사업설명회 발표자료(PPT)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요청 시 공유 가능함  
☐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(051-797-4774, 051-797-4913)로 문의 바람

